

정부는 농어민 지원과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9.30.(수) 파이낸셜뉴스 「“농민 홀대 하나”···국가 R&D예산서 농업 비중 3.1%에 불과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국가 연구개발(R&D)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.”면서, “반발이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재정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미루자 농업계는 ‘홀대론’을 제기”하고 나섰으며,
 - “전체 예산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낮고, 최근 5년간 국가 예산이 연평균 6.2%씩 늘어나는 동안 농림수산물 증가는 5.3%에 그쳤다”면서
 - “공익직불·가격안정 등 농업 분야 의무·경직성 지출이 확대되면서 미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보도설명 >

- 정부는 농업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, 농어민의 소득·경영안전망 확충과 농어업의 구조혁신,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❶ 먼저 '27년 정부안의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9.5% 증가한 30.7조원으로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.
 - 농어촌 기본소득, 공익직불금 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·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,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농어촌 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 공동영농 패키지 지원 등 **농어업의 규모화·구조개편을 촉진**하고, 공공형 물류센터·도매법인 설립 등 **유통구조 혁신**을 통해 **농어업의 경쟁력도 지속 강화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② 미래 농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R&D 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, '27년 농업 R&D예산은 1조 2,435억원으로 전년대비 4.7% 증가하였습니다.

- 노동력부족, 생활·영농문제 등 **농업현장의 애로**를 해소*하고, 기상재해·병충해 등 **농어촌 현장 재난 피해**를 선제적으로 차단**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.

* 신규무인자율노지농업생산피지컬AI기술개발, 신규농업·농촌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등

**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, 국내유입우려병해충발생예측및 방제기술개발, 국가 작물보호 전주기 대응기술개발 등

- 또한, 농업 전반의 **AI·디지털 전환**과 **식량·에너지 안보**를 강화하는 등 **미래농업 혁신의 발판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신규AI기반바이오데이터소재통합활용지원사업, 신규지역맞춤형중소규모스마트팜모델 실증및고도화, 신규영농형태양광기반고소득식량-에너지NEXUS개발 등

- 앞으로도 정부는 **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**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, **농어업의 구조혁신**과 **미래 기술경쟁력 강화**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과학기술혁신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전보람 (044-214-2770) 이미숙 (leemisuk@korea.kr)
	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류재현 (044-214-2750) 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주무관	강성환 (044-202-6860) 박종찬 (jcp95@korea.kr)